

5. 피부근염-다발성근염 환자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식도운동의 정량적 측정

서울의대 내과

이명혜·정준기
이명철·고창순

피부근염-다발성 근염은 결체조직질환의 일종으로서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. 골격근 중 주로 4지대의 근위근, 경부와 인두근의 대청성 근쇠약과 위축을 일으키는 미만성 비화농성 염증과 변성병변을 특징으로 한다.

피부근염-다발성근염의 임상증상으로는 근위근쇠약, 관절통, Raynaud현상, 피부발진, 근육통 및 연화곤란 등이 있다.

피부근염-다발성근염의 진단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비전형적인 예에서는 특히 어렵다. 전형적인 증상이 나오기 전의 초기에는 병력, 이학적 검사, 혈청 근효소 균전도와 근생검 등의 이상이 불분명하므로 진단이 힘들어 치료가 지연되기 쉬우며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게 된다.

이에 연차등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식도스캔을 통하여 인두근 및 식도운동의 변화 양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피부근염-다발성근염의 진단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에 임하였다.

1) 대상환자 29명중 피부근염 17예, 다발성근염 9예 및 다른 결체조직질환과 중복된 피부근염-다발성근염 3예였다. Bohan등에 의한 진단 기준에 따르면, 피부근염 17예 중 definite가 16예, Probable이 1예 였고, 다발성근염 9예 중 definite 2예, probable 5예 및 possible이 2예 였다. 남녀비는 7명 대 22명으로 여자가 3배 많았으며, 연령분포는 17세에서 74세였다.

2) 29예 중 14예에서 인두부의 최대 계수치에 대한 60초 후 인두부 내 잔류방사능 계수치의 %값(%R)이 10%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었는데, 진단 기준별로 피부근염의 definite 16예 중 9예, 다발성근염 definite 2예 중 1예, probable 5예 중 1예 및 possible 2예 모두에서 증가되어 있었다.

3) 29예 중 10예에서 정상 식도스캔 소견을 보였고 4예에서 경도, 12예에서 중등도 그리고 3예에서 중증의 식도운동 이상 소견을 보였다.

4) 인두부의 %R값이 10% 이상으로 증가된 14예 중 11예에서 식도의 이상을 보였는데 3예에서 경도, 5예에서 중등도, 그리고 3예에서 중증의 이상을 보였다. 이상의 결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식도스캔을 통하여 인

두근 및 식도운동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연하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피부근염-다발성피부염 진단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
6. 위전절제술 및 루프 식도공장 문합술을 시행한 환자와 정상인에서의 Small Bowel Transit Time의 비교

서울대의대 외과
양한광·김선희·김진복
내과
정준기·이명철

위전절제 후 유발되는 영양장애의 한 원인으로 음식의 소장통과시간이 가지는 의의를 보기 위하여 수술전보다 평균 13%의 체중감소를 보인 위전절제후 식도공장 단축 및 근위공장공장 측측문합술을 시행한 환자 15명과 정상인 6명과의 소장 통과시간을 비교하였다.

검사식으로는 계란흰자 100 ml에 1 mCi 99m Tc-SC를 섞어 후라이 한 것, 밥 50 g, 물 100 ml을 사용하였고, 검사식을 먹고 감마카메라로 촬영한 후, 컴퓨터로 분석하여 음식의 첫부분과 중간부분의 통과시간을 측정하였다.

1) 음식 첫부분의 소장통과시간은 환자군에서 221.3 ± 24.39 분이고, 대조군에서는 232.5 ± 26.26 분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($p>0.05$).

2) 음식 중간부분의 소장통과시간은 환자군에서 326.0 ± 58.04 분, 대조군에서 271.8 ± 46.64 분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($p>0.05$).

3) 환자군에서 음식의 처음 부분부터 뒷부분으로 갈수록 소장통과시간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다.

즉, 위전절제후 체중감소를 보인 환자군과 정상인 대조군 간에 음식의 첫 부분과 중간부분의 소장통과시간이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. 따라서 위전절제후 영양장애로 초래되는 체중감소는 소장통과시간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.

7. 위전절제후 루프식도공장문합술시 유입부 루프결찰이 식도역류에 미치는 효과

서울의대 외과 및 내과
김병식·김경국·김선희·이건욱
김진복·정준기·이명철

위암환자에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후 발생하는 역류성